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정주'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향후 과제 논의: 일본의 유학생 취업 지원 제도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박주현 객원연구위원(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 박사후연구원)

한국과 일본은 생산가능인구·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지방 소멸과 같은 시급한 사회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은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한국은 2020년대에 이르러 외국인 유학생을 '정주 가능성'을 가진 잠재적 전문인력으로 보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유학생 정책 또한 이들의 취업 및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제도가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방향 및 향후 과제 측면에서 주는 시사점은 1) 외국인 유학생 취업률의 구체적 목표 설정 필요, 2) 외국인 유학생/졸업생 대상 정기적 실태조사 및 취업 종합 안내서 제공, 3) 지역대학-기업-지자체의 협력체제 구축, 4) 다양한 인턴십 기회 마련, 5) 외국인 유학생/졸업생에 특화된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채용 플랫폼 마련 등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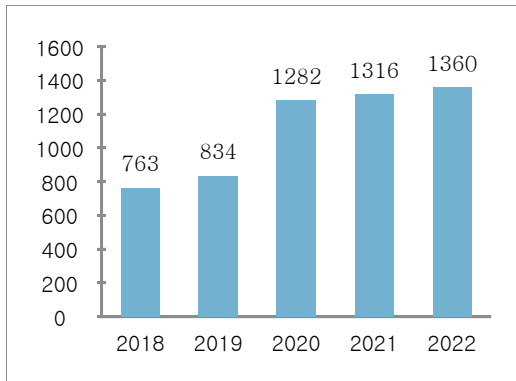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외국인 유학생은 주류 사회의 주된 언어, 문화, 사회 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잠재적 전문인력이자 고급 인재이다. 교육부의 2022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집계」¹⁾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4년(16,832명)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166,892명을 기록하였다. 출신지역별로 보면 외국인 유학생의 88.2%가 아시아 국가 출신이며, 그 다음으로 6.5%가 유럽

국가 출신이다.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 국적(40.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베트남 국적이(22.7%)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대부분(90.9%)이 자비유학생이며, 대학초청 장학생 및 정부초청 장학생은 각각 4.2%와 2.4%를 차지하였다.¹⁾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그림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 수가 2018년 763명에서 크게 늘어 2022년 1,360명에 이르렀다.²⁾

1) 이 통계자료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또는 그 외의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을 지칭한다.

〈그림 1〉 2018-2022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수
(단위: 명)



자료: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연도별 선발현황(2022년 8월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졸업 이후 취업 의향 및 장벽

한국에서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있어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및 정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필수적인 기반 중 하나는 ‘취업’일 것이다. 통계청·법무부에서 공동 실시한 「2020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유학생 응답자의 32.7%가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³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1년 700명의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설문 참가자 중 30.7%가 졸업 후 한국에서 체류하며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졸업 후 취직에 성공하게 될 경우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내 노동시장,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부족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며,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확장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⁴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할 의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국내 노동시장 진입은

쉽지 않다.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연구에 따르면 많은 참가자들이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향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한국어 실력, 취업 정보의 부족, 차별경험, 대학의 취업지원서비스 부족 등과 같은 이유로 한국에서의 취업을 포기하기도 한다.⁵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졸업 후 현황(구직률, 취업률 및 진학률)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부 통계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의 「고등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은 연도별 국내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과정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현황을 제공하여 주고 있지만,⁶ 전체 졸업자 중 현재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미상’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한계가 있다. 〈표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22년도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27,321명 중(2022년 4월 1일 기준)에서 국내 취업을 한 비율은 8.2%로 나타난다.²⁾

〈표 1〉 2022년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현황

(단위: 명, %)

졸업 후 현황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합계
국내 취업	252 (13.4%)	479 (3.9%)	1,522 (11.5%)	2,253 (8.2%)
국내 진학	456 (24.3%)	1,776 (14.5%)	772 (5.8%)	3,004 (11.0%)
본국 귀국	336 (17.9%)	3,521 (28.8%)	3,953 (29.9%)	7,810 (28.6%)
미상	835 (44.4%)	6,431 (52.7%)	6,988 (52.8%)	14,254 (52.2%)
합계	1,879 (100%)	12,207 (100%)	13,235 (100%)	27,321 (100%)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2 교육통계분석자료집-고등교육통계편」.

2) 미상의 비율(52.2%)을 감안하면 유학생의 실제 국내 취업률은 8.2%보다는 높을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국내 석사/박사학위취득 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중 취업자의 비율은 석사 학위취득자는 25.3%, 박사학위취득자는 53.6%였다. 대학원 유학 후 국내 노동시장진입에 성공한 석/박사 출신 외국인 유학생을 6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구직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구인 정보 부족’ 및 ‘기업/직장 정보 부족’이 가장 많았다.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취업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석사 출신의 경우 인터넷 구직 사이트 이용(73.5%), 지인 추천(43.4%)이 가장 높았고, 박사 출신의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50.4%), 인터넷 구직 사이트(47.3%)로 가장 높았다. 이들은 대학의 진로서비스/교육(예: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비자정보 제공, 외국인 진로전담 인력 여부)에 매우 불만족하고 있었다. 대학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서 취업정보를 얻었다고 말한 비율은 석사출신 12.9%, 박사출신 10.7%로 매우 낮았다.⁷

이민정책연구원의 「국내 우수 유학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정부초청 장학금을 받고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 중 졸업 후 한국에 취업한 비율은 26.3%밖에 되지 않으며, 57.1%가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정부초청 외국인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졸업 후 한국 관련 업무의 전문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야 할 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절반 가까이의 응답자들이 취업 관련 정책(예: 유학생을 위한 취업서비스 마련, 학업 중 인턴십 기회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⁸ 법무부가 2023년 8월 24일 배포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 보도 자료⁹에 따르면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졸업 후 국내 취업을

하지 못하여 본국 귀국 또는 제 3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하고 있다.³⁾ 졸업 후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의향과는 달리 이들은 노동 시장에 진입함에 있어 실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여러 연구 및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정책 최신 동향: ‘유치-취업-정주’ 방향으로

〈표 2〉는 200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주요 정책 및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성은 유학생 수의 ‘양적 성장’에 있었다. 대학 체제의 개선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라는 목표 하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Project; 2005~2012) 정책이 수립 및 실행되었다.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 명 유치라는 목표는 2007년에 조기 달성되었고, 2007년에 교육부는 2012년까지 외국

〈표 2〉 국내 외국인 유학생 주요 정책

시기	외국인 유학생 주요 정책	방향
2000년대	Study Korea Project (2005~2012)	양적 유치
2010년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2011~) Study Korea 2020 Project (2013~2023)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2014)	↓ 질적 관리, 양적 유치 ↓
2020년대	Study Korea 300K Project (2023~2027) 유학생 유치를 위한 규제 혁신 대학·기업·지자체 간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조직체계 구축	취업 및 정주 지원, 양적 유치, 질적 관리

3) 이 보도 자료에서 법무부는 2022년 외국인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 취업률의 근거 통계 자료가 함께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이 취업률을 제시한다.

인 유학생 10만 명 유치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였다.¹⁰ 2012년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86,878명으로 10만 명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2004년의 16,832명 대비 그 수가 5배 이상 늘어난 양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냈다. 2010년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기존의 유학생 ‘양적 유치’에 더하여 ‘질적 관리’라는 방향성이 추가되었다.¹⁰ 대학교육 및 유학생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가 2011년 도입되었다. 「Study Korea 2020 Project」(2013~2023) 정책은 기존에는 2020년까지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을 초기 목표로 하였지만,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유학생 수의 정체기를 겪으며 목표 기한을 2023년까지로 연장하였다.⁴⁾ 유학생 수의 양적 확대를 위해 2014년 만들어진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지원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 후 국내에서 정주할 대상이 아닌 자국으로 돌아가 친한(親韓) 글로벌 인재로 역할을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2000년대의 Study Korea Project에서 시작하여 2010년대의 Study Korea 2020 Project에 이르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전체적으로 유학생의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들의 유학 후 ‘취업 및 정주’를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5,7} 반면 2020년대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및 정주 지원’에 더 주목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적 전문인력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전 세계적 경쟁 가운데,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과 같은 인구절벽 위기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인구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가 ‘취업-정주’로 연결되는 것이며, 이는 곧 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¹²

2023년 8월 16일에 발표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2023~2027)은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여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유학생의 ‘유치-학업-취업-정주’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 방점을 찍고 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의 재학 중 취업관련 규제(시간제취업 허용시간, 인턴십, 현장실습 기회 확대)를 혁신하여 이들의 학업 중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하였다.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 유학 후 일정기간 취업 및 거주한 외국인에게 장기거주비자를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이들이 졸업 후 지역 특화 산업체에서 일하며 정주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지역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정주형 외국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지역기업 및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한국어 및 기술 교육을 하고, 취업/창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¹²

최근 시행된 「Study Korea 300K Project」가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적인 ‘유치’에 그치지 않고 ‘취업-정주’라는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리 발견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외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고용 연계 제도’ 사례를 통해 본 프로젝트의 발전방향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함께 ‘신흥 이주국’¹³으로 분류되는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인구

4)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말 기준 외국인 유학생(유학 또는 한국어/외국어 연수 자격 소지자)의 수는 205,167명 이었다.¹¹

구조 위기를 겪고 있으며,¹⁴ 이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잠재적 전문인력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에서 찾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흐름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 주요 정책의 흐름은 <표 3>에서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 내 외국인 유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온 정책은 「유학생 수용 10만인 계획」(1983)으로 2010년까지 1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았다.¹⁵ 이 양적 목표는 2003년에 조기 달성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해도 일본은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지적 공헌이라는 관점에서 유학생 정책을 실행했다면,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급인재 획득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국익추구의 관점에서 고도인재유치를 위한 유학생 정책을 마련하고,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를 설립하였다.⁸

2008년 발표된 「유학생 30만인 계획」은 일본의 유학생 및 이민 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주었다. 잠재적 고도인재(우수인재)로서 외국인 유학생을 단기 체류인이 아닌 ‘정주 가능성’을 가진 정착인으로 시각을 전환하면서 유학생 정책을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¹⁵ 전 세계에 있는 우수 유학생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그 목표로 삼았다.

일본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화 거점 준비사업」(Global 30)을 통해 일본의 13개 국제화

거점대학에서는 국제적인 학위 프로그램을 만들고, 영어로 강의하는 과목을 늘렸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학 및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외국인 학생들의 일본으로의 유학이 보다 간편해졌다.¹⁵ 2014년부터 시행된 「슈퍼 글로벌 대학사업」 이후 유학생 수는 계속 증가해서 2019년에 총 유학생 수는 31만 명에 이르렀다.⁷

〈표 3〉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주요 정책

시기	외국인 유학생 주요 정책	방향
1980년대~1990년대	유학생 수용 10만인 계획 (1983~2010)	양적 유치, 국제사회 공헌 ↓ 우수 인재 유치 ↓ 우수 인재 유치, 취업 및 정주지원 양적 성장 질적 관리
2000년대 초중반	고도인재유치를 위한 유학생 정책 (2003)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설립 (2004)	
2000년대 중후반~2010년대	유학생 30만인 계획 (2008~2020) 국제화 거점 정비사업: 글로벌 30 (2009~2013) 슈퍼 글로벌 대학 창성 지원 사업 (2014~2023) 유학생 취직촉진사업(2016~)	
2020년대	유학생 40만인 계획 (2023~2033)	

2023년 3월 일본 정부 자문기구인 교육미래창조회의에서는 203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40만 명을 유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재조정하였다.¹⁶ 일본은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을 우수 유학생 ‘유치-취업-정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제도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 상황」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4월 1일

부터 2022년 3월 31일 사이 일본에서 졸업(수료)한 외국인 유학생(대학원, 대학학부, 단기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등) 66,420명 중 25,054명(37.7%)이 유학 후 일본에서 취직을 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¹⁷ 문부과학성은 일본경제재생본부의 「2016 재흥전략」에 발맞추어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률을 30%대에서 5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¹⁸

일본은 취업 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있어서 내국인 및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부분이 정해진 과정을 따라 취업을 하게 된다. 대학(원)생들은 졸업하기 적어도 1년 전부터 구직을 시작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지원하고 싶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며, 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면 일본어로 진행되는 인/적성 검사 및 인터뷰를 거치게 된다. 3월부터 9월까지의 약 6개월의 시간을 거쳐 이 과정을 통과한 후 10월 이후 공식적인 취업 제의를 받고 나면 이들은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해 3월 졸업 이후 4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일본의 시스템이다.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구직 기간 동안 구직정보 부족(38.5%), 일본의 구직/채용 시스템에 대한 낮은 이해(33.8%), 일본어로 된 인/적성 평가 및 일본어 능력 평가의 어려움(33.2%) 등과 같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¹⁹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유학생 취직 촉진 사업」은 문부과학성에 선정된 12개의 거점 대학이 지자체 및 산업계와 협력하여 일본어 교육, 경력 개발 교육, 중장기 인턴십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한 유학생들은 수수료증을 받게 되고,

이 수수료증은 구직 성공률을 높여줄 서류가 된다.¹⁸ 거점 대학 중 한 예로 도요대학의 「유학생 I-Turn 취업촉진 프로그램」은 도쿄와 지방소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해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소도시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인턴십을 할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또한 취업에 관심이 있는 유학생을 위해 비즈니스 일본어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일본어 의사소통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또한 유학생들이 채용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운영하는 공공취업센터 Hello Work와 대학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이 최신의 채용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¹⁸ Hello Work에서 ‘유학생’ 또는 ‘글로벌 인재’ 등의 키워드 검색을 하면 일본 전역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인정보를 얻을 수 있다.¹⁹ 또한 Hello Work에서는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에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고용 센터는 외국인 취업 지원 거점센터로서 역할을 하며, 취업 준비, 취업 매칭, 정착 등 유학생의 취업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준다. 예를 들어 도쿄 외국인 고용센터에서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외국인 채용 의사가 있는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 구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취업면접 기회를 제공한다.¹⁴ 일본무역진흥기구에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⁵⁾에는 고도 외국인 인재 채용 의향이 있는 기업의 리스트를 얻을 수 있는데,¹⁹ 기업의 채용 분야 뿐 아니라 그 회사에서 인턴십을 제공하는지, 근무언어로 영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학문 분야의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고

5) <https://www.jetro.go.jp/hrportal/company/>

싶어 하는지의 정보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조건에 맞는 회사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 일본학생지원기구에서는 매년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준비를 안내하는 가이드북을 일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간체자 및 번체자)로 출판한다. 이 가이드북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제도화된 일본 특유의 채용 시스템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고, 취업 준비(예: 업계기업/직종 연구, 인터넷 등)·채용시험(필기시험 및 면접)·내정·입사에 이르기까지 취업의 시작단계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필요한 정보들을 수록해놓았다. 이에 더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할 근로 매너(예: 옷차림, 언어 사용, 메일 작성 예절, 전화 예절) 등과 관련된 정보 또한 수록되어 있다. 이 뿐 아니라 일본학생지원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진로상황·학위수여 상황 조사, 외국인 유학생 연간 유치 상황 조사, 외국인 유학생 재적상황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사비외국인유학생 생활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한다.⁶⁾

한국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정주’ 지원을 위한 향후 과제: 일본의 유학생 취업 지원 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우수 유학생(고도인재)의 ‘유치-취업-정주’의 방향으로 지난 20년 가까이 실행되어왔다. 일본의 유학생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일본 내 노동시장에 진입

할 수 있도록 대학, 기업, 지자체, 정부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실제적인 지원책들을 마련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제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는 「Study Korea 300K Project」에서 초점을 두는 유학생의 ‘취업-정주’ 지원이라는 방향성에 동력을 주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 취업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등교육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정확한 취업률 통계를 매년 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유학생 취업 지원’을 교육원의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본학생지원기구와 같이 국내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생의 진로 상황 및 유학 실태조사를 전담하여 진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특별히 정부초청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서 유학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학 및 졸업 이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실태 조사 연구가 꾸준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2023년부터 8월부터 「Study Korea 300K Project」가 새롭게 시작된 만큼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학생이 한국에서 유학, 구직, 취업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유학생 취업준비 안내 가이드북과 같이 한국에서도 졸업 후 취업을 고려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취업 관련 유용한 최신의 정보를 모아놓은 가이드북을 매해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것 또한 유학생들의 구직 및 취업활동에 실

6) 한국어 버전의 일본학생지원기구 웹사이트에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도별 통계 링크가 제공되어 있다. (http://jasso.or.kr/sub/sub03_01.php?PHPSESSID=02896e4080f36cf983b55e485f639448)

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맞춤형 유학생 정책을 설계해나가야 한다.⁴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실제적인 필요에 기반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예: 특정 직업 영역별 한국어 단기 프로그램) 및 취업 준비 프로그램(예: 면접 준비 세션, 한국 직장 문화에 대한 워크숍, 진로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지역 대학이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역별 거점 대학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지역 내의 유학생들을 위해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와 같은 채용 기회에 대해서 손쉽게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는 산학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 기업/회사에서 채용 정보를 지역 내 교육기관에 제공하고, 학교는 그 정보를 소속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준다면 보다 많은 유학생들이 지역 내 채용의 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 기간에 한국의 노동시장을 경험해볼 수 있는 인턴십의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 법무부는 유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2023년 7월 3일부터 외국인 학사과정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하고, 방학 중 유학생이 전공 외 분야에서도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자 지침을 개정하였다.¹² 이와 같은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중 취업 제도의 변화가 보다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LG이노텍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을 2023년 7월 약 한 달 동안 진행하였다. 이 인턴십은 연구개발과 마케팅, 생산기술, 경영기획 및 재무, 구매, 인사관리 등 다양한 직군에서 실무경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조직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²⁰ 앞으로 보다 다양한 기업이 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서 외국인 유학생을 발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인턴십 제도를 활용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향후에는 학기 중에도 정해진 시간 내에서 단기 인턴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지원 가능한 채용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운영 채용 플랫폼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유학 종합시스템(스터디인코리아)에는 ‘K취업’ 섹션에서 구인 정보를 27개의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⁷⁾ 그러나 이 정보는 외국인에게 특화된 정보가 아닌 워크넷(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연동되어 있는 구인 정보가 번역된 것이다. 이 구인 정보에는 어떤 조건의 외국인이 지원할 수 있는 정보(예: 한국어 실력, 비자 규정 등)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도 외국인이 지원할 수 있는 채용 공고를 찾기가 쉽지 않다. 물론 사기업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플랫폼(예: K-Campus 및 Work Korea)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구직 수요 대비 정보의 제공은 많이 부족하다.

7) <https://www.studyinkorea.go.kr/ko/jobmain.do>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진입함에 있어서 내국인 학생 대비 구직 정보 접근의 불평등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구인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공적인 채용 플랫폼을 개선해야한다. 예를 들어, 워크넷에 구인 정보 등록 시 선택정보로 외국인 채용 여부 및 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넣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만약 워크넷에 이 정보가 포함되게 되면 외국인이 지원 가능한 구인 정보가 한국유학 종합시스템 상에서 연동되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채용 정보만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잠재적인 전문인력군인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학 후 성공적으로 ‘취업-정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의 국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들의 취업을 실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산업계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민정책 이슈브리프는 국내외 이주 관련 정책 현안을 반영한 시론적 성격의 자료입니다.

참고자료

1. 교육부, 2022. “2022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50&lev=0&statusYN=W&s=moe&m=0309&opType=N&boardSeq=93469)(검색일: 2023. 8. 29.).
2.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2022.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연도별 선발현황(2022년 8월 기준)」.
(<https://www.data.go.kr/data/3059527/fileData.do?recommendDataYn=Y>)(검색일: 2023. 8. 29.)
3. 통계청, 법무부. 2020. “2020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고용·보전 및 정보화·한국생활·한국어 능력·체류사항·비전문취업·유학생]”.
4. 박윤경, 이병재, 김기태, 고민경, 김경환, 김규찬. 2021.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연구보고서 No.2021-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이창원, 김도혜, 최서리, 신소희. 2020. 「국내 유학생의 학업실태 및 취업이행 연구: 이공계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2020-05. 이민정책연구원.
6.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2. “2022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고등교육통계편” 수탁통계자료 CSM 2022-07.
7. 민속원, 송창용, 윤혜준, 김혜정. 2020. 「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선택 탐색과 인적자원 활용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8. 오정은, 고지영, 김정미, 김안나, 안상욱, 장지은, 한유경. 2013. 「우수 유학생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장단기 전략 연구」. 이민정책 연구보고서 No.2013-02. 이민정책연구원.
9. 법무부 보도자료. 2023. 8. 24. “① 숙련 인력, ② 유학생, ③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14/574514/artclView.do>)
10. 강동관. 2020. 「대한민국 이민정책 프로파일」.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총서 No.2020-08. 이민정책연구원.
11. 법무부. 2023. “2023년 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12. 관계부처합동. 2023. 8.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 Study Korea 300K Project”.
13. OECD/EU. 2018. Settling In 2018: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9789264307216-en>)
14. 하정봉. 2018.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 변화와 함의: 아베정권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2(1): 29-56.
15. 임경택, 설동훈. 2014. 「일본의 유학생 유치 정책과 시사점」. 이민정책연구원 위킹페이퍼 시리즈 No.2012-06. 이민정책연구원.
16. Nikkei Asia. 2023. *Japan Shoots for 400,000 Foreign Students by 2033*.
(<https://asia.nikkei.com/Spotlight/Japan-immigration/Japan-shoots-for-400-000-foreign-students-by-2033>)
17. JASSO. 2023. *2021 Career Status Survey for International Students*.
18. MEXT. 2017. *Program for Enhancing Employ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https://www.mext.go.jp/en/policy/education/highered/title02/detail02/sdetail02/sdetail02/1414915.htm>)
19. JASSO. 2023. *Job Hunting Guide for International Students 2024*.
20. 이새하. 2023. “외국인 인턴 뽑아요: 문호 넓히는 한국기업, 어디길래.” 매일경제.

박주현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 박사후연구원으로 2020년 10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Qualification and skill in the migration process of foreign workers in Asia’ 그룹 연구 프로젝트에서 연구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아시안 전문인력의 적응 및 정착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 외에 한국인/아시안 이민자의 정체성 및 인종 차별경험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는데 관련 연구로는 ‘뉴질랜드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국가 정체성 및 웰빙 간의 관계’, ‘코로나-19 기간 동안 아시안 뉴질랜드인들의 인종차별 경험 및 삶의 만족도’ 등이 있다.

집필자 박주현 **문의** 02-3788-8040 **발행인** 손흥기 **발행처** 이민정책연구원 **발행일** 2023년 9월

주소 08100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93(신정동) 양천빌딩 별관 2층, 3층 **Tel.** 02-3788-8040 **Fax** 02-3788-8099 | www.mrtc.re.kr

인용 박주현. 2023.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정주'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향후 과제 논의: 일본의 유학생 취업 지원 제도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2023-06. 이민정책연구원. 대한민국. 서울.

본 자료는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원의 허락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본 이슈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MRTC)과 국제이주기구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ISSN 2383-8175